

<글말교실 감상문>

2021학년도 2학기 글쓰기 과목을 수강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, 평소 글쓰기가 낯설었던 저는 많은 어려움과 직면했습니다.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주제문, 개요 작성, 내각주 표기와 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일까지 많이 혼란스러웠고 부족한 개요를 작성하는 동안 제 주제와 글에 대한 확신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좋은 기회를 통해 참여한 일대일 코칭에서 조재현 교수님과 약 2-30분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며 글쓰기에 대한 제 생각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.

교수님께서 제 글을 정말 꼼꼼하게 피드백해주셨습니다. 단순하게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,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저 스스로 온전한 제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. 교수님께서 제가 선택한 주제의 약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서, 동시에 에세이와 보고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가 써나가야할 보고서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. 또 제가 쓴 개요에서 보완이 필요한 주장과 근거들을 집어주시며 이 역시 어떻게 보완해야할지,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또 즉석에서 제 글을 처음 읽으시는게 아니라, 미리 읽어보시고 이 코칭을 준비해주셨다는 생각에 코칭에 대한 신뢰도도 높게 느껴졌습니다.

교수님의 꼼꼼한 코칭 이후 저는 주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, 새로운 주장과 근거를 더하면서 여러 학술 논문을 꼼꼼하게 읽고 검토해 저만의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코칭을 통해서 글쓰기에 무지했던 저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에 대해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또 대학 수업에서 글을 쓸 기회도 많은 만큼 정말 막막할때가 많은데 앞으로도 일대일 코칭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또 일대일 코칭을 통해 배운 것은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1학년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, 제 글은 사실 어느 면에서나 교수님이 보셨을 때에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코칭에 임해주셨습니다. 코칭이 끝나고 저는 "나는 왜 그렇게 글을 못 썼던걸까?" 같은 부끄러움보다는 "이런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면 나도 좋은 글을 쓸 수 있겠구나."와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제 주제와 글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

글쓰기에 있어서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, 또 다른 학우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글말교실 일대일 코칭의 유일한 단점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저 역시 글말교실 일대일 코칭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,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학우들에게 알려져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대학교 학우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 역시 동기들에게 적극적으로 글말교실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입니다. 끝으로 좋은 기회와 가르침을 주신 교양대학 조재현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